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 브릿지경제

## 대구대 3개 국책사업단, 취창업 연합캠프 개최.."학생 취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동홍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2-12-25 12:18



대구대 3개 국책사업단이 2022 동계 신기술 분야 취업 스킬업 캠프를 개최했다.  
 역대급 경제 한파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내년엔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타  
 개하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분주하다.

지난 22~23일 부산 해운대 그린나래호텔에서는 대구대학교 3개 국책사업단(반도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LINC3.0사업단, 지역혁신 친환경 배터리 사업단)이 준비한 ‘신기술 취창업 연합캠프’가 열렸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사업단이 일정을 조율해 취창업캠프를 공동 개최하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3개 사업단 모두 학생 취업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캠프는 3개 사업단 공통의 미션인 ‘신기술분야(반도체, AI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 8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 참가한 반도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은 교육부가 지난해 선정한 디지털혁신공유대학 트랙 중 하나로 개설된 조직이다. 대구대는 서울대(주관대), 강원대, 중앙대, 송실대, 포항공대, 조선이공대와 함께 반도체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융합학부를 개설해 관련 학과(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전공 학생들에게도 소자·공정, 시스템·SW(소프트웨어), 회로·시스템 등의 마이크로디그리 및 부·복수전공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과 부·복수 전공 이수 학생들이 참가했다.

LINC3.0사업단은 스마트제조ICC와 관련한 AI학부생들이 캠프에 참가했다. 대학 내 스마트제조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스마트제조ICC는 육일산업 등 39개 산업체와 정보통신대학, 공과대학 소속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인력양성에 협력하고 있다.

지역혁신 친환경 배터리 사업단은 올해 대구경북지역이 선정된 지역혁신플랫폼(RIS)사업으로 개설된 조직이다. 대구경북지역 RIS 주력분야인 미래차융합전공에서 대구대는 ‘친환경 배터리소재’ 파트의 주관대학을 맡고 있다. 신소재에너지시스템공학부 등이 참여한다.

캠프에 참가한 이들 3개 사업단 소속 학생들은 자기분석을 시작으로 취업준비를 위한 기업분석, 직무분석 노하우 및 이미지 메이킹, 포트폴리오 작성요령에 대한 특강과 실습을 가졌다. 이후 면접 트레이닝과 모의면접을 통해 취업과정을 경험했다.



학생들이 모의면접 고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캠프 종료 후 한 학생은 “모의면접이 너무 떨렸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매번 면접이나 발표를 피하기만 했었는데 캠프에서 직접 부딪혀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정말 뜻 깊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면접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연습을 한번 더 하게 됐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기회가 생겨서 참 좋았다”고 말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